

작품 내용

제 목	빼앗긴 그림
내 용	나는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공부, 음악, 체육 그리고 미술까지 모든 것이 그저 그랬다. 잘하는게 딱히 없는 그런 아이이다. “야, 이지은! 같이가!” 그리고 여긴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7년지기 친구 김선주이다. 우리는 항상 같이 다녀 친구들이 쌍둥이라 부를 정도였다. 선주는 어릴 때부터 그림, 공부, 체육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주와 비교를 당했다. “아침을 방금 먹고 왔는데 왜 배고프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먹고 싶다..” “....” “지은아, 너 무슨 일 있어?” “응..?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시간표 뭐더라?ㅎ” “오늘은 말이지..1교시 미술, 2교시...” 오늘은 하필이면 미술 시간이 있는 날이다. 선주는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잘하며 커서 세계적인 미술가가 꼭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런 선주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생의 절반을 선주와 비교 당하다 보니 한 번 정도는 내가 더 잘 하고 싶었다. 남들로부터 인정 받고 싶었다. 1교시 미술, 선생님께서 미술 그림 공모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너 나갈꺼야?” 내가 선주에게 물었다. “내가 안 나가면 최우수상은 누가 받아?ㅋㅋㅋ” 최우수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김선주.’ 한 달 뒤, 미술 그림 공모전 결과가 나왔다. ‘최우수상 김선주, 우수상 박아름...’ 순간 주변에 있던 여자 아이들의 대화가 들렸다. “김선주..이번에도 재야?” “저번에 그림 그린거 보니까 진짜 잘했긴 하더라.”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이 대화를 들었을 때 나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질투인지 나는 왜 못하는가에 대한 짜증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선주에게 가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줬다. 하지만 그날 밤 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림 공모전 결과 이후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하면 김선주보다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핸드폰을 들어 SNS를 켜다. SNS에는 자신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려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자신이 그린 것이라 말하며올린 그림 몇 장에 눈길이 갔다. 그 사람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어마어마 했고, 댓글 또한 칭찬하는 글 뿐이었다. ‘나도 올려볼까?’ 무심코 든 생각이었다. 나는 내 방을 둘러보았다.

김선주는 모르겠지만 내 방 곳곳과 핸드폰 갤러리에는 선주가 그린 사진들이 있었다. ‘몇 번 정도는 괜찮겠지?’ 난 내 SNS 계정에 ‘그림을 사랑하는 중학생 화가입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선주의 대작 몇 개를 올렸다. ‘이래도 되는 건가’, ‘선주에게 안 물어봐도 되는 건가’ 하는 물음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다음날, 등교 준비를 하던 중 SNS를 확인한 나는 깜짝 놀랐다. 하루 사이에 팔로워는 300명 가까이 늘었고 댓글들은 모두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하는 글들이었다. 어젯 밤 들었던 생각들은 다 지워지고, 나의 그림이라 믿는 사람들의 말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받아보고 싶었던 사랑도 받았겠다 팔로워까지 늘었겠다 뭐가 문제지?’ 나는 2주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며 선주의 그림을 SNS에 계속 올렸다. 3주째 되던 날 선주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지은! 이 사진들 뭐야?”

“어..? 아니..”

“설명해!”

주변 친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뭐야, 뭐야? 저 사진들 다 선주가 공모전 같은 대회들에서 냈던 그림 아니야?”

“설마, 지은이가 선주 그림을 훔친거야?”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벗어났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마음이 허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가장 친한 친구여서, 혹은 질투 때문에 남의 그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 선주의 그림들은 각종 대회를 통해 사회에 많이 공개됐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허락 없이 사용하면 표절이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었다. 선주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때까지 내가 한 일들이 너무 후회됐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사과하고 싶었다. 하교 후, 편지만큼 자신의 감정을 신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집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선주에게.

안녕? 나 지은이야.

오늘 있었던 일은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의 그림들의 저작권은 너에게 있는 법인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난 너가 나보다 항상 잘하는 모습에 늘 질투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어. 나를 인정해 주는 느낌 때문에 멈출 수 없었나 봐.

그래도 너의 그림들을 사용하면 안 됐었는데.. 넌 나의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친구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작권자에게 꼭 허락을 받는 습관을 들이기로 할게. 그리고 너의 그림들을 올렸던 계정은 삭제 할 거야. 정말 미안해! 2026년 하늘이 푸르게 빛나던 날.

지은이가.

편지내용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며 고쳤다. 내일은 이 편지를 선주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선주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함께.